



가구의 총 저축액 대비 개인연금 저축액 비중 비교

최장훈 연구위원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노후준비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함. 한국노동패널을 살펴본 결과 가구의 총 저축액에서 개인연금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보다는 증가했으나 배우자가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구주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그 이유로는 생활비 부담, 기대수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비상자금 준비에 대한 부담 등을 들 수 있음. 이들에 대한 연금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구주 특성을 반영한 상품개발과 정책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¹⁾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고 기대수명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
 -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
-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주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노후 준비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 큼

■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가구단위의 총 저축액 중 개인연금 저축액의 비중은 모든 경우에서 2005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주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표 1〉 참조)²⁾

- 총 저축액 중 개인연금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과 2015년을 모두 포함하여 8.0% 이하

1) OCED Pension at a Glance 2015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임

2)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주의 개인연금 저축액 비중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으나 연금에 건강보장 등을 추가하여 그들을 방지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도 필요함

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와 없는 가구주 모두 개인연금 저축액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두 가구 간의 차이는 2015년에 더 벌어짐
-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가구주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주도 배우자 유무 가구의 경우와 같이 모두 증가하였고 두 가구 간 차이도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짐

〈표 1〉 총 저축액 중 개인연금 저축액 비중

(단위: 만 원/월, %)

연도		총 저축액(A)		개인연금 저축액(B)		비중(B/A)	
		2005년	2015년	2005년	2015년	2005년	2015년
전체 가구주		81.3	108.8	4.8	8.2	5.9	7.5
배우자	유	85.6	114.4	5.1	8.7	6.0	7.6
	무	48.8	70.0	2.8	4.8	5.8	6.9
건강상태	좋음	96.3	117.6	5.7	9.5	6.0	8.0
	좋지 않음	65.5	93.9	3.9	6.0	5.9	6.4

주: 41~60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노동패널(2005, 2015)

■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주의 경우 개인연금 저축액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배우자가 없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³⁾ 물가상승으로 현재의 생활비에 대한 부담⁴⁾이 높아 유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 있음
- 이들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와 건강한 가구주보다 행복감이 적고 장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⁵⁾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유인이 낮을 수 있음
- 또한 비상시(질병, 상해 발생)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 있음

■ 결혼과 건강 상태별로 개인연금 가입 요인이 다르므로 가구주 특성을 반영한 개인연금 상품 개발과 정책적인 혜택이 필요함

- 3) 2015년 한국노동패널 분석결과 41~60세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 소득의 50%,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는 좋은 가구의 85%로 나타남
- 4) 2016년 통계청에 의하면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비중을 의미하는 엔겔지수는 소득 5분위가 11.09%인데 비해 소득 1분위는 20.44%를 나타냄
- 5) 2010년 남자 이혼자와 사별자의 사망률은 유배우자의 사망률에 비해 각각 2.7배와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는 각각 2.8배와 2.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수영(2015), 「혼인상태별 사망력 차이: 1990~2010」, 한국인구학회)

- 배우자 유무와 건강상태에 따라 기대수명의 차이를 반영한 개인연금 상품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
- 연금에 건강 또는 상해 보장을 결합하여 노후생활과 비상시에 필요한 자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 중도인출이 현재보다 더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
 - 연금저축의 경우 3개월 이상 요양, 사망, 해외이주, 파산, 그리고 천재지변 등에만 인출할 수 있는 현재의 중도인출조건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음 **kiri**